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8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 다 감사 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참 길이 아닌 곁길로 이끄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희망의 불빛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는 지쳤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영원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구별 여행길에서 만난 소중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 곁에 다가서지 못하고,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주님, 누군가를 돕는 일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거둔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미가7:8 인도자

♠ 교 독 문 9. 시편23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533.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다함께

성경봉독 I. 눅12:16-21 인도자

II. 요일1:1-4 정현주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김재흥 목사

II. 사권은 물처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78 .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생명의 향기를 발해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오나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세상에 평화를 가져가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살림의 손길이 되어 모든 죽어 가는 것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3)/김재흥 목사	8월 기도의 밤
기도 : 김훈동 권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에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조관행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이호원 권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홍순구	유영남	이영란	이증자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김근종	배상순	최숙화	박효선

세속적인 종교와 예언적 설교

요크(York)에서 사목하는 한 사제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 오늘 하루가 라운트리 코코아 공장에서의 저녁식사로 끝이 났다. 어떤 이들은 대성당에서 가졌던 성찬 전례보다는 라운트리 공장에서 나눴던 바 현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물론 그 저녁 토론은 윤리적 내용이 풍부했다. 하지만 대성당에서의 전례는 종교적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활기차게 토론을 벌인다 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종교는 삶의 신비에 대한 반응이며 우주의 무한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다. 윤리적 체험이 없다면 무한은 결코 윤리적 용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생동감 있는 경건한 사람은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무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흐릿한 조명, 높고 둥근 아치형 천장, 제단의 칸막이, 고요한 속삭임은 종교 안에 있는 신비의 요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적절한 설교가 없다면 도덕적인 목표는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신비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결국 윤리적 내용이 사상된 경외심만 동그마니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외심에만 사로잡힌 종교는 마치 자부심 강한 작은 한 남자가 나뭇대로 편안하고 자기 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회중들에게 삶의 궁극적이고 언표(言表)할 수 없는 진리를 보잘것없는 상투어구에 담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 대성당에서 윤리적으로 생동감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 유감스럽다. 오늘 아침에 행했던 그 초라한 성찬 전례—마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었던—는 물론 대성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전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역으로 많은 교회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부터 분리된 채 있는 오늘의 현실이 유감스럽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노정(露呈)하고 있는 현실은 종교에 꼭 필요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예쁜 소프라

노 독창자의 빨간 모자, 자의식이 강한 성직자의 프록 코드로부터 안락한 장의자와 회중들의 화려한 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임을 보여준다.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예배당에 비쳐들고, 세속적 지혜의 밝은 태양이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두루 비춘다.

물론 나는 헌신적인 태도가 때로는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문명 속에서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석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예배와 교훈을 위해 과학적인 동시에 시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분석적인 동시에 신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헤이우드 브라운(Heywood Broun)이 자기는 “이단적인 설교가 시행되는 감독교회”를 차라리 더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단적인,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생동감 있고 동시대성에 충실한 종교적 가르침은 전례 중심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곳 영국에도 대성당에서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더러 있다. 어쩌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는 그런 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종교적 두려움과 경외심을 도덕적으로 위험하다 해서 도외시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듣는 예언적 설교는 세속화된 교회가 그 도덕적 잠재력에 있어서 좀 더 우월하다는 확신을 줄 정도로 격렬한 것은 물론 아니다.(1924년)

— 리차드 니버의 <<어느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중에서

사막은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한 사람에게 하루 2.5리터의 물, 간소한 음식, 몇 권의 책, 몇 마디 말이면 족하다. 저녁은, 이야기, 웃음 가득한 밤샘으로 이어진다. 나머지 시간은 명상과 정신 수양으로 보낸다. 두뇌는 한 곳을 향하고 드디어 우리는 하찮은 일, 쓸데없는 것들, 수다스러움에서 벗어난다. 두 심연 사이의 섬광인 인간은 지나고 나면 흔적도 남지 않을 길을 내면서 간다.

— 테오도르 모노, <<사막의 순례자>> 중에서

연민을 갖는다는 것

연민을 갖고 사랑을 베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를 느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연민을 갖는 것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들의 무력감에 공감해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반면 무언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근경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보여주고
그들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



잃은 것과 얻은 것, 기쁨과 고통에
동요하지 않는 법을 배운 자여,
그대의 삶은 헛되지 않도다.

-안젤루스 실레시우스(17세기 독일의 복음주의 시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박병선 고사일 최영선 오진훈 노순옥 박규석 박경선 김필순
 이광용 형인순 임승동 백해숙 임창선 배상순 박경원 김혜권 이유선
 방극숙 박정숙 김민주 고광송 이춘희 김애경 박성수 오자영 최미선
 맹은선 이해동 임종우 최인환

월정헌금:

윤성중 김윤정 문복순 박병구 이봉배 전영자 조항신 문홍일

감사헌금:

박규석 박경선 김혜권 김 극 이해동 맹은선 오진훈 노순옥 김수홍
 김중수 류준모 무명1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삼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해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수해구호헌금 : 오늘 예배 중에 수해를 만난 이들과 교회를 위해 구호헌금을 봉헌합니다.
2.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 담임 목사실에서 모입니다.
3. 기도의 밤 : 8월 2일(수)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사위와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에게 주시는 위로와 내적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4. 봉사 : 8월 4일(금) 오후 12시 30분/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5. 중고등부 수련회 :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감리교 일영 연수원에서 열리는 '평화 캠프'에 참가합니다. 주 강사는 이현주 목사님입니다.
6. 청년회 : 오후 1시 30분부터 <십계명>을 중심으로 대화 모임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4남선교회 : 4남선교회 월례회 및 친교모임이 8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8. 선교회장 간담회 : 다음 주일(8월 6일) 오후 3시에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9. 신앙실천 :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냉방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다소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 헌화 : 장재영 집사 김재영 집사 (그냥 감사)

8월	영접	조병무 김용진 홍순구 박효선 정경례 고숙이
	헌금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송양진 안정숙 허정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